

강의계획서 (4주, 12시간)

주차	교육내용	비 고
1	<p>희요순우로 시작하는 중국 역사이야기 이희신(李羲臣) 이요신(李堯臣) 이순신(李舜臣) 이우신(李禹臣) 或言禹會諸侯江南，計功而崩，因葬焉，命曰會稽。會稽者，會計也</p> <p style="color:red;">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ctext.org</p> <p style="color:red;">先秦兩漢->經典文獻->周易->易經->1☰乾 ~ 64☷未濟 [384개 흐(爻)]</p> <p style="color:red;">先秦兩漢->道家->道德經(又名：老子) 1장 ~ 81장</p> <p style="color:blue;">하상(은)주의 왕조교체이야기</p> <p style="color:blue;">음양오행 : 목 화 토 금 수, 금씨가 김씨로 바뀐 사연? & 후금이 청으로 바뀐 사연!</p> <p style="color:blue;">경국지색 : 말희, 달기, 포사</p> <p style="color:green;">봉신연의(36회 & 37회)에서 보는 주역의 탄생스토리</p> <p style="color:green;">주왕(紂王) & 달기(妲己) : 紂囚西伯昌羑里/주수서백창유리 vs 서백=희창=문왕 (母: 태임, 아들: 무왕 & 주공) : 武王伐紂/무왕벌주</p>	<p>이순신장군의 4형제 司馬遷/史記/夏本紀 35 太史公曰</p> <p>우/탕/문무주공 걸말희/주달기/유포사 酒池肉林</p> <p>영화 파묘: 馬血의 기운으로</p> <p>신사임당: 그 이름의 유래를 아시나요? 정몽주의 이름에도? 이성계의 새이름에도? 李成桂 → 周公=姬旦 → 李旦</p>
2	<p>1193: 无平不陂 无往不復, 41: 損益盈虛 與時偕行, 42: 凡益之道 與時偕行, 48: 无喪无得, 55: 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, 도덕경 = f (15☰謙, 41☷損, 52☶艮, 55☷豐, 60☳節)</p> <p style="color:blue;">8:上善若水,</p> <p style="color:red;">19:絕聖棄智,絕仁棄義,絕巧棄利, 20:絕學無憂,</p> <p style="color:blue;">56:知者不言 言者不知, 71:知不知上 不知知病, 80: 小國寡民</p> <p style="color:red;">81:信言不美 美言不信/善者不辯 辯者不善/知者不博 博者不知</p> <p>태극기와 주역8괘 : 乾하늘 離불 坎물 坤땅</p> <p>사상의학 4개(2X2) < MBTI 16개($2^2 \times 2^2$) < 주역 64개($2^3 \times 2^3$)</p> <p>주역의 핵심 키워드: 손익쾌구 (돌고 도는 cycle)</p> <p>41☷損 input 42☶益 output 43☲夬 breakdown 44☱姤 reunion 생주이멸(生住異滅) / 브라흐마-비슈누-시바 도덕경 40장:反者道之動 = 되돌아가는 것이 道의 움직임 아브라함계열의 유일신 종교 (기독교, 유대교, 이슬람교)</p> <p style="text-align:center;">≠</p> <p style="color:blue;">동양의 범신론적 종교 (힌두교, 불교, 유교, 도교)</p> <p>의리역(정이천): 元亨利貞(원형이정)을 춘하추동과 같은 cycle로 본다 상수역(주자): 元亨(원형)과 利貞(이정)을 구분하여 형통함이 크지만(元亨) 곧아야 이롭다(利貞)는 점괘(占卦)로 본다</p> <p style="color:green;">주역에 Alan Turing이 없는 이유는? 에니그마는 풀어도 주역은 못푼다? 에니그마 <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< 주역 < 리만가설 주역(周易)은 비유/은유/상징/proxy로 이루어진 mental secret code</p>	<p>채우고 지키는 儒教 = active/적극의 美學 프리드리히 니체: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les geht, Alles kommt zurück</p> <p>영국속담 <u>What goes around</u> <u>comes around</u> 비우고 지키는 道教 = passive/소극의 美學 13 천화 同人 ☰ 14 화천 大有 ☷ 생로병사(生老病死) 흡입 압축 폭발 배기</p> <p>Product Life Cycle 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박카스는 예외?</p> <p>주역64괘의 BIG 4=손익쾌구 VS 도덕경의 BIG 4=1/25/40/48 only exception 4 ☷ 산수 蒙, 六三 勿用取女；見金夫， 不有躬，无攸利。 象傳 勿用取女，行不順也。</p>

3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덕경 1장</p> <p>최고의 클라이맥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맨 처음에? 왕필의 설명: <道德真經註> & <老子微旨例略>을 보자!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very first 12 characters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道可道，非常道。名可名，非常名。</p> <p>원인: 指事造形 (<u>어린이날 무지개 & 키어축제 무지개</u>) vs 결과: 大失其旨 & 未盡其極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덕경 25장 (도덕경 1장에서 질러놓고 수습하기!)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吾不知其名，字之曰道，強為之名曰大。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덕경 48장 (힘을 완전히 빼고 비우고 또 비워야 스윙이 자연스러워!)</p> <p style="color: blue; text-align: center;">為學日益，為道日損。損之又損，以至於無為。無為而無不為</p> <p style="color: green; text-align: center;">儒道佛에서는 공통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일깨우고 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道可道，非常道。Name可Name，非常名。</p> <p style="color: green; text-align: center;">주역: 繫辭上 12 書不盡言，言不盡意 書 < 言 < 意</p> <p style="color: green; text-align: center;">불교의 깊은 뜻이 언어라고 하는 수단으로써는 도달할 수 없는 언어도단(言語道斷) / 불립문자(不立文字)</p>	<p>先秦兩漢 -> 出土文獻 -> 馬王堆 -> 老子甲 -> 老子甲道經 道可道也，非恆道也 Name可Name也，非恆Name也</p> <p>非恆道 → 非常道 漢文帝 劍恒의 避諱(피휘)</p> <p>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못해서 글자를 빌려 “도”라했으며 억지로 이름을 붙여 “크다”고 했다</p> <p>故無為乃無所不為也 무위는 곧 무소불위다 王弼, <道德真經註></p> <p>주역에서 십익(十翼)이란? 단전(彖傳) 상하, 상전(象傳) 상하, 계사전(繫辭傳) 상하, 문언전(文言傳), 설괘전(說卦傳), 서괘전(序卦傳), 잡괘전(雜卦傳)</p>
4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자 지북유 7장</p> <p>道不可聞，聞而非也；道不可見，見而非也；道不可言，言而非也。 知形形之不形乎？道不當名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회남자 도응훈 1장</p> <p>道不可聞，聞而非也；道不可見，見而非也；道不可言，言而非也。 孰知形之不形者乎？</p> <p style="color: blue; text-align: center;">故老子曰：天下皆知善之為善，斯不善也。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故「知者不言，言者不知也。」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씨춘추 중하기 대악 4장</p> <p style="color: blue; text-align: center;">道也者，視之不見，聽之不聞，不可為狀。 有知不見之見、不聞之聞，無狀之狀者， 則幾於知之矣。</p> <p style="color: blue; text-align: center;">道也者，至精也，不可為形，不可為名， 彊為之謂之太一</p> <p style="color: green; text-align: center;">노자 도덕경과 베토벤 교향곡 5번 “운명”的 공통점은? “따다다단” = 道可道，非常道。Name可Name，非常名。 “운명”교향곡을 들으며 노자 도덕경의 의미를 곱씹어보자 !!! 1장=제1악장, 25장=제3악장, 48장=제4악장</p>	<p>회계감사에서 의미하는 감사증거능력은 주역과는 정반대 書 > 言 > 意</p> <p>굳이 갖다 붙이자면 “큰거 한방” 이라고나할까?</p> <p>지독한 두괄식 story</p> <p>시작이 반이다 Aller Anfang ist schwer</p> <p>2작품 모두 masterpiece</p>